

엔비디아, 삼성·SK·현대차와 ‘AI 동맹’ 강화

엔비디아·한국 상호 협력 주요 내용

경주 APEC 계기 10월 31일 발표

	엔비디아 한국 공급 GPU(그래픽처리장치)	엔비디아 GPU 활용 및 협력 내용
한국 정부 최대 5만 개	■ ■ ■ ■ ■	기업과 산업의 AI 개발 지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에 활용
삼성전자 최대 5만 개	■ ■ ■ ■ ■	반도체 AI 팩토리 구축, 엔비디아 플랫폼 활용 디지털 트윈 구축, 차세대 가정용 로봇 개발 등
SK그룹 최대 5만 개	■ ■ ■ ■ ■	AI 팩토리 구축해 디지털 트윈과 AI 에이전트 개발, 국내용 서버인 AI 인프라 제공
현대차 최대 5만 개	■ ■ ■ ■ ■	‘AI 기반 모빌리티’ 공동할 블랙웰 AI 팩토리 구축 및 국내 약 30억 달러 공동 투자해 기술센터, 데이터센터 등 설립
네이버클라우드 최대 6만 개	■ ■ ■ ■ ■ ■ ■	산업 현장 AI 전환 목적 퍼지컬 AI 플랫폼 개발해 현실 산업 환경 가상공간 구현

※ AI 팩토리 엔비디아가 제시한 개념으로 일반적인 데이터센터와 달리 지능을 생산하는 장소

총 26만 장, 최대 14조 원 규모 추정

엔비디아 GPU 공급 시 국내 AI GPU 규모 변화

기존 6.5만 장 → 공급 후 30만 장 이상



국내에 14조원 규모 GPU 26만장 우선할당 공급 정부 최대 5만개 배치…네이버클라우드도 참여

엔비디아가 정부와 국내 4개 기업(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네이버클라우드)에 총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투입한다. 최대 14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전 세계적으로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GPU를 한국이 우선으로 받는 동시에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생태계’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주권형(소버린) AI 구축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는 국내 기업들과 6세대 이동통신(6G), 의료, 양자컴퓨팅 부문에서도 폭넓게 협력할 계획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근 국내외 미디어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인프라·기술 발전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한국은 26만개에 달하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 블랙웰을 활용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동차·제조·반도체·통신 등 주요 산업의 AI 개발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한다는 게 골자다.

먼저 정부는 최대 5만개 GPU를 배치해 기업과 산업의 AI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삼성과 SK그룹, 현대차그룹은 각각 최대 5만개의 GPU를, 네이버클라우드는 6만개의 GPU를 도입한다.

엔비디아 측은 “새로운 블랙웰 인프라로 한국의 전체 AI GPU 수량은 6만 5000개에서 30만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로써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AI 리더가 될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들을 중심으로 GPU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 데다, 국내에 들어올 GPU의 물량이 상당한 만큼 최종 공급까지 리드타임(소요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엔비디아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우선 GPU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GPU는 최신 ‘GB200 그레이스 블랙웰’로, ‘RTX 6000 시리즈’도 일부 혼합할 것으로 알

려졌다.

업계 추산으로 GB200의 가격이 대략 3만~4만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총 공급 규모는 10조~14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협력은 단순 ‘하드웨어 딜’을 넘어 ‘플랫폼 동맹’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정부와 4개 기업은 GPU뿐 아니라 엔비디아의 여러 플랫폼을 활용해 ‘AI 팩토리’ 구축에 나선다.

AI 팩토리는 엔비디아가 내세운 개념으로, 일반적인 데이터센터와 달리 지능을 생산하는 장소다. 엔비디아가 한국을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 낙점한 데는 반도체·제조·통신·게임·AI스타트업 등 탄탄한 밸류체인과 AI 인프라를 실제 산업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삼성엔비디아와 5만개의 GPU를 탑재한 업계 최대 수준의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해 AI 기반 제조 혁신을 실현한다. 또 오픈소스 기반 대형언어모델인 네모 트론(NeMo Tron)과 쿼다(CUDA)-X, 오픈버스 등 엔비디아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반도체 제조 속도와 수율을 개선하는 디지털 트윈도 구축 중이다.

엔비디아 코스모스와 아이작(Isaac) 로보틱스 플랫폼을 이용한 차세대 가정

용 로봇 개발에도 착수했다.

SK그룹도 엔비디아 GPU를 활용한 AI 팩토리를 설계한다.

이 팩토리는 반도체 연구 및 생산, 클라우드 인프라 발전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트윈과 AI 에이전트 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SK텔레콤은 엔비디아 RTX 프로 6000 블랙웰 서버 에디션 GPU를 활용해 국내용 서버인 AI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면 국내 제조사들은 엔비디아 오픈버스 기반의 산업용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SK그룹은 엔비디아와 협력해 디지털 트윈과 로봇, 거대언어모델(LLM) 등 학습·추론, 3D 시뮬레이션 기능을 두루 갖춘 ‘산업용 AI 서비스 공급 사업자’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AI 기반 모빌리티’를 구동할 블랙웰 AI 팩토리를 구축한다. 5만개의 블랙웰 GPU를 탑재한 이 AI 팩토리는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분야의 거대 모델들을 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차의 AI 전환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정부와 국내 퍼지컬 AI 분야 확장을 위해 30억달러(약 4조3000억원)를 공동 투자한다. 연합뉴스

포스코, 美 대형 철강사 지분인수 검토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와 ‘전략 파트너십 MOU’

포스코홀딩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고율 관세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최대 철강사 중 한 곳인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에 조단위 규모의 대형 투자를 단행해 ‘동업자 수준’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내 경제 및 산업 현대제철과 ‘오월동주’식 협력을 통해 미국에 제철소를 새로 건설하기로 하는 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한 데 이어 미국 메이저 철강사 지분 확보를 통해 공장 현지 시장에 공급할 물량을 확보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9월 17일(현지시간) 포스코와 전략적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포스코는 미국 내 기존 고객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사 제품이 미국 무역 및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보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종 계약은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 발표되고 거래는 내년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이번 성명에서 전략적 협력의 구체적 내용을 더는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측에 서만 나왔고, 포스코홀딩스 측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발표를 하지는 않았다. 철강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의 지분을 상당 부분 인수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 생산 물량을 공급 확보해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의 시가총액은 약 60억달러(8조6000억원)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전략 투자 차원에서 최소 20% 이상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투자금은 현 시가 수준에서 1조7000억원이 필요하게 된다. 연합뉴스

공공 부문 토목공사 증가에 건설경기 회복

■ 호남통계청 9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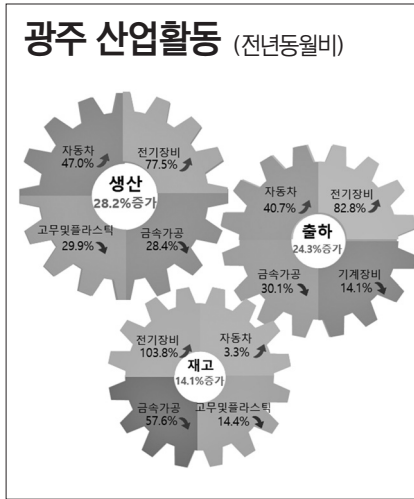
전년비 광주 133%·전남 72% ↑

광공업생산 회복·대형소매 부진

지난 9월 광주·전남의 건설경기가 공공 부문 토목 공사를 중심으로 눈에 띄는 호조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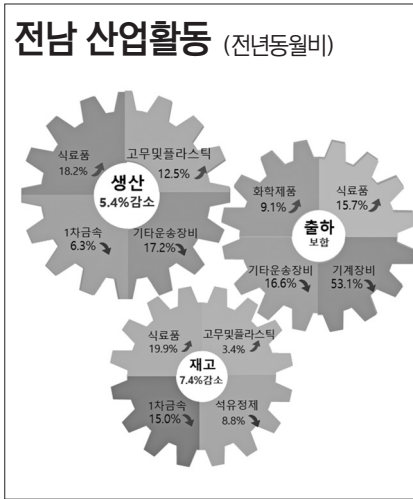
2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9월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3.6% 증가한 1614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내 전체 수주액 14조3714억원 중 1.1%를 차지하는 규모다.

발주자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공기업, 기타공공단체 등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675.4%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부동산, 금융·보험·서비스 등의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했다.

공사 종류별로 보면 건축부문은 학교·병원·관공소, 기타건축 등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39.1% 증가했으며, 토목부문은 철도·도로, 조경공사 등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835.4% 증가했다.



전남지역 건설수주액은 1407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2.2% 올랐고, 국내 건설 공사 수주액의 1.0%를 차지했다.

공공 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280.1% 상승한 반면, 민간 부문은 부동산, 제1차금속 등의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69.3% 감

소했다.

건축부문은 주택, 공장·창고 등의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71.1% 줄었고, 토목부문은 도로·교량, 발전·통신 등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208.4% 올랐다.

광공업 생산은 광주와 전남 회복이 엇갈렸다. 광주의 광공업 생산지수는 131.5로 전년 대비 28.2% 증가했으며, 전월 대비로는 8.4% 감소했다.

자동차, 전기장비, 담배 생산이 늘었으나 고무·플라스틱, 금속기공, 인쇄·기록매체 등은 줄었다.

전남의 광공업 생산지수는 101.6으로 전년보다 5.4%, 전월보다 0.8% 각각 감소했다. 식료품, 고무·플라스틱, 기계장비 수리 등은 증가했지만 제1차금속, 기타운송장비, 화학제품 생산이 줄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광주가 96.8로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

전남은 75.6으로 지난해보다 21.7% 줄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대한항공 기내식에 우리 쌀·농산물 가공식품 납품

농협·한진·대한항공C&D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 협약

농협경제지주는 최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한진, 대한항공C&D와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조현민 ㈜한진 사장, 최덕진 대한항공C&D 대표 등이 참석해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와 글로벌 유통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3사는 △우수 국산 농산물 가공식품의 기내식 납품 △기내식 전용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물류 협업을 통한 농업인 물류비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농협경제지주는 납품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농협 브랜드 가치를 해외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고, 국산 농산물 가공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는 최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한진, 대한항공C&D와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4년 연속 증가하고, K-푸드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기내식이라는 글로벌 접점을 통해 국산 농산물 가공식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서홍 대표이사는 “이번 기내식 납품

을 통해 우리 쌀과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판로를 개척해 농협 가공식품을 세계 시장으로 확산시키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삼성전자·KT 등 19개사

‘동반성장 명예기업’ 선정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19개 기업이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컨설팅 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제84차 동반성장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3개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아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삼성전자(14년), SK텔레콤(13년), KT, 현대트랜시스(11년) 등 19개사이며, 롯데케미칼이 신규로 선정됐다.

2024년도 공표기업은 대·중견기업 230개사로,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5개 등급으로 발표했다. 올해 지수평가는 ‘최우수’ 40개사, ‘우수’ 70개사, ‘양호’ 80개사, ‘보통’ 28개사, ‘미흡’ 12개사로 확인됐다. 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서 심의 중인 6개사는 공표가 유예됐다.

롯데백화점, 롯데웰푸드는 지수평가에 참여 이래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휘발유 가격 3주만에 상승…유류세 인하 축소 영향

ℓ당 광주 1653.1원 6.4원 ↑

유류세 인하를 축소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3주 만에 올랐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다섯째 주(26~30일) 광주와 전남지역의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653.1원, 1672.1원으로 전주 대비 각각 6.4원, 4.5원 상승했다. 광주·전남 휘발유 판매가격은 10월 둘째 주(5~9일)부터 2주 연속 최대 1.2원 떨어졌다.

광주 경우 판매가격은 ℓ당 1532.2원으로 지난해보다 8.9원 올랐고, 전남은 5.1원 상승한 1547.2원을 기록했다.

광주·전남에서 휘발유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은 광주 광산구 장록동 ㈜평동제일주유소(1589원)와 영암군 삼호

읍 ㈜원 삼호현대주유소(1575원)로 확인됐다.

경유는 광주 광산구 장록동 ㈜평동제일주유소(1469원)와 나주시 동강면 ㈜원(1463원), 나주시 왕곡면 ㈜대원에너지 알봉지점(1463원)이 가장 저렴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도 3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보다 ℓ당 5.4원 오른 1666.5원이었다.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은 10월 둘째 주(5~9일) 1663.2원을 기록한 뒤 1662.7원(10월 셋째 주), 1661.1원(10월 넷째 주)으로 떨어졌다. 경우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7.0원 오른 ℓ당 1541.7원을 기록하며 1주 만에 다시 상승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이어진 국제 유가 상승에 1일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를 축소분이 반영되면서 다음 주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상승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